



"한국의 창을 열고 세계를 누벼라!"

SKIS 도서관 소식지 5월호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제 2020 - 468 호

대 상 : 초등학생(G1~G6)

담당자 : 사서 이지연

발행일 : 2020년 5월 4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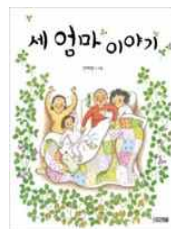
5월 주제가 있는 북 큐레이션



주 제 명 : '가족의 발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달은 가족과 관련된 책들을 골라 봤습니다. COVID-19로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사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번	도 서 명	저 자
1	불량 가족 레시피	손현주
2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3	(악어오리)구지 구지	천즈위엔 글·그림; 박지민 옮김
4	세 엄마 이야기	신혜원
5	빼악이 엄마	백희나
6	가족:사랑하는 법	선헌연 글; 이혜란 그림
7	가족은 꼬옥 안아 주는 거야	박윤경 글; 김이랑 그림
8	우리는 한가족	루시 샤렌베르크 글;베레나 발하우스 그림;이상희 옮김
9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박윤경 지음; 신지윤 그림
10	우리 가족이 최고야!	J.S. 잭슨;R.W. 앨리 그림;노은정 옮김
11	우리 아빠	앤서니 브라운; 최윤정 옮김
12	복실이네 가족사진	노경실 글; 이혜원 그림



모녀 4대가 지혜와 힘을 모아 콩 농사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콩의 한살이와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을 이루는 가운데 얻는 즐거움과 보람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아이가 함께 보면 좋은 그림책입니다.



작고 악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무섭고 악랄하게 생긴 고양이인 병아리 빼악이를 키우며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며 서로 사랑한다면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정, 노랑 두 가지색만으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엄마, 아빠의 재혼으로 어느 날 부터 한 가족이 되는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꼭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여겨지는 보통의 가족형태와는 다른 한부모 가정이 서로 합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 언니, 동생 혹은 친척과의 사이에서 격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교감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말이 오묘하게 표현하는 이해의 힘으로, 그날처럼 읽어주는 이해의 힘으로, 가족의 말투 사랑



이번엔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할머니를 돌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이들과 그 과정에서 할머니란 존재가 싫어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꺼안아야 할 가엾고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서 ‘삶을 사랑하는 첫 시작이 곧 정리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았다. 정리가 뭐길래, 정리를 왜 해야 하는가? 정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정리로 성공한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리라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한 책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응모자 및 응모내용

★ ‘책의 날’ 삼행시

성 명	학년/ 반	응 모 내 용
송 해준	5학년 2반	책: 책방에 의: 의자 하나 놓고 날: 날마다 책을 읽고 싶어요
정 하리	1학년 1반	책: 책은 심심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의: 의문이 많은 나에게 해답을 주고 날: 날마다 날마다 생각나는 너
조 예리	1학년 2반	책: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의: 의자에 앉아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날: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책을 즐겁게 읽었어요.
진 유빈	3학년 2반	책: (나는)책을 매일 읽는다. 의: 의자에 앉아서도 읽고, 바닥에 엎드려서도 읽는다. 날: 날마다 날마다 읽어도 재미있다. “책아, 고마워...”
김 다은	3학년 2반	책: 책이 말하기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의: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날: 날아갈, 저 멀리 평화로운 곳으로 날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이 유나	6학년 2반	책: 책은 의: 의미있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날: 날 상상의 세계로 데려다 준다.
김 예원	4학년 1반	책: 책을 읽을 때는 의: 의자에 앉아 마음을 열고 날: 날개를 펼쳐봐!
김 예린	2학년 1반	책: 책 읽고 친구랑 같이 이야기 나눈다 의: 의견도 지해도 같이 나눈다. 날: 날마다 생각이 자라는 나!
박 진우	4학년 1반	책: 책방에 갔는데 제제 의: 의 라임오렌지 나무책이 있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내 생일 날: 날에 사준다고 했다.
박 연우	2학년 1반	책: 책을 의: 의자에 앉아서 읽다 좋았는데 날: 날 꼭~ 안아준 엄마

★ 나만의 ‘책 속 한 문장’

성 명	학년/반	응 모 내 용
진 세민	1학년 1반	“개굴개굴”하라고 하면 “굴개굴개”라고 하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꿀고만 했던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이때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굴개굴하고 울었어요. -P.29 청개구리(한은선 글)
진 유빈	3학년 2반	옛날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거미 아난시가 살고 있었어. 아난시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잘난 척만 하고 남을 골려 먹다가 벌을 받아 거미가 되고 말았다. -P.8 카멜레온에게 혼쭐난 아난시 (양태석 글)
김 다은	3학년 2반	“동동 밀려오는 두려움에 가라앉기 보다 까치발을 닫고서 씩씩하게 걸어가면 좋겠어.”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에게
김 시원	2학년 2반	잠들기 전, 이 인형들에게 너의 걱정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넣어 두렴. 네가 자는 동안 이 인형들이 대신 걱정을 해 줄 거야. -P.14 겁쟁이 빌리(앤서니 브라운 지음)
김 소이	4학년 1반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만의 집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또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공부를 다시 봐주게 되는 거예요. 바뀌 말하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P66-67 안네의 일기(안네프랑크 지음)



1. 2020학년도 1학기 희망도서 입수 지연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희망도서 구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COVID-19 여파로 인하여 국제 물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신청한 도서 입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5월 ‘가정의 달’ 맞이 4행시 응모행사

- 응모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 5월 29일(금)

- 응모내용 :

행사내용	행사내용	상품
4행시 짓기	‘가정의달’,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4행시를 지어보기	응모한 이용자에게 책갈피제공 (등교일 이후)

-응모방법 :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skis.winbook.kr) <참 여 마 당 > 게 시 판 에 작 성 해 주 세 요 .

※ 별도 회원가입 없이 작성자에 학년, 반, 이름을 꼭 기입해주세요!